

▪ 교회소식 ▪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특강 : 오늘 오후 1:30 김승철 박사의 <엔도 슈사쿠의 숨은 신과 일본 기독교> 강연이 있습니다.

원로나들이 : 25일(화) 여주로 원로나들이를 갑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추수감사절 : 11월 첫째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준비합시다. 오후에는 감사찬양제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실천 : 조금씩 낙엽이 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떨궈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적어봅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롬 6:17-23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조항범 권사	정원석 집사

10월	1부 영접위원	이진영 박미연
	1부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한완식 허호범 이성범 유병선 박성실 서정순 정현선
	2부 헌금위원	김인걸 최현옥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김영희 윤성종 최철수 한상균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박소현 이수정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세 이하)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 2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창조절 제8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가을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을 제 몸에 받아들인 나무들이 고운 단풍으로 변하듯, 우리도 하늘바람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해가게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계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맑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물과 과오가 드러날 때 권력으로 덮으려 하거나 발뺌하려 들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정치’가 걱정과 한숨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29:13,14a 인도자
- ▲ 교 독 문 12. 시편 19편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안홍숙 권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다 함께
- ▲ 성경봉독 행 17:1-9 I. 인도자
II. 이형숙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주의 기도 찬양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박정운 변재민 이소혜 윤정득 임호성

감사헌금

김중원 김해선 변성호 유성애 오승아 이미정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최미선 무명6

재해구호헌금

이지하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엔도 슈사쿠의 숨은 신과 일본 기독교 김승철 박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봉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 복효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소녀시대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세상 불의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하신 길만을 따라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일상에 찌든 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불의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눈 떠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해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벌써 아련한 그리움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자옥한 미세먼지 때문에 해돋이의 장관을 보지 못하고 푸른 바다 풍경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들과 동행한 시간이 시종 유쾌했습니다. ... 햇빛이 고요한 물결 위로 번져올 때 우리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아픔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 그렇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아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저는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 아픔과 더불어 살아온 이의 쓸쓸함과 아울러 어떤 넉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고통이 운명처럼 달라붙어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면 생각만으로도 참 힘겨운 인생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현웃 벗어던지듯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 바울 사도도 떠오릅니다. 그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는 그 가시아말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제거할 수 없는 아픔은 품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남해에서 돌아와 함석헌 선생의 시 <마음에 부치는 노래>를 찾아 읽었습니다.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눈 떠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역사가 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었느니라 / 뒥구는 한 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박길 잊지 마라/ 인생이 가시밭이라도/ 그 속에 으늑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짓

기를 잊지 마라/ 삶이 봄 풀에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영원의 향기 마시기를 잊지 마라

... 거듭해서 등장하는 ‘내 마음아’라는 호격조사 속에서 저는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지요? 함 선생은 그런 마음의 실상을 알기에 흔들리기 쉬운, 까무룩 잠들기 쉬운 그 마음을 자꾸만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눈을 떠 바라보면 거친 바다 위를 비추는 별이 있고, 썩어진 흙탕 밑에도 기름진 맛이 들어 있고, 가시 밭 같은 인생에도 으늑한 맛이 있는 법입니다. 썩어진 흙탕 같은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장춘몽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함선생은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겠죠.

김수영은 고단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3인도교의 물속에 박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슴털
- 김수영, <거대한 뿌리> 중에서

이 도저한 도전 정신,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다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비장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거대한 뿌리’를 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해야 할지, 연민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가려는 그 검질긴 마음속에서 나는 거룩을 봅니다. 가끔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속마음을 허물없이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그래도 동행이 있어 힘이 납니다. 이 가을에 흐뭇한 일 많이 만나시기를 빕니다.

- 김기석,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꽃자리) 중에서